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는 모든 가족에게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합시다” [요 14:1-3]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전도서 3장 1-2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에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 이후를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서는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가 살 집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영접하고 살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예비하신 처소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의 허무하고 썩어질 것을 떠나 하늘의 영원한 집,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지으신 집에 들어가는 입주식입니다. 그곳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영원한 내 집, 내 본향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처소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들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모두 그날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길 소원합니다.

##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죽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2. 성도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약속 받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약속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가족미션

천국에 대한 성경말씀을 찾아 적어보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